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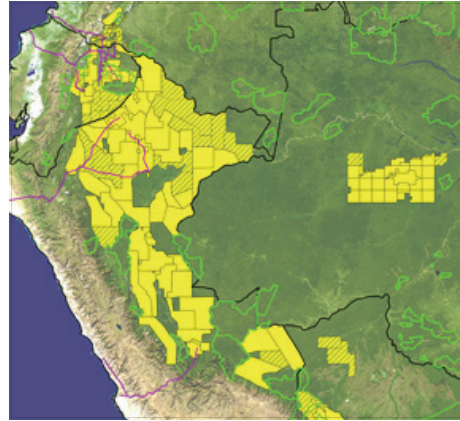
아마존 서부지역의 석유개발에서 환경과 원주민 문제

김기현

2000년대의 자원 가격 상승, 특히 유가 상승은 심해 유전뿐만 아니라 아마존 정글 지역 깊숙이 매장된 석유에도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특히 페루와 에콰도르에 소속된 아마존 서부지역 정글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정부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이런 값진 자원의 개발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아마존 지역에서의 자원 개발은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전통적 삶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특히 석유 개발은 시추시설은 물론이고 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를 통해서도 삼림파괴, 대기오염, 원유유출, 수질오염 등 수많은 환경문제를 야기했으며, 그에 거주하는 원주민 공동체의 존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 이러한 자원 개발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이들 국가의 석유산업과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심지어 중앙정부의 통치성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도대체 아마존 서부지역에서 석유개발은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과 각국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지역의 석유와 가스개발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석유 탐사는 이미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지역에서는 많은 대형 석유와 가스 개발 프로젝트들이 실현되었다.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몇 개 석유개발 프로젝트, 최근 페루 남부 아마존 지역의 카미세아(Camisea) 가스개발, 그리고 페루 북동부 아마존 로레토(Loreto) 지역의 석유개발 프로젝트



아마존 서쪽 지역에 분포하는 석유매장지(노란색 선)와 보호구역(연두색 선)
(이미지 출처: <http://news.mongabay.com/>)

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이러한 개발 규모와 강도는 급속히 증가했다.

그 결과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대부분이 이미 개발을 위해 임대되었거나, 개발 협상 중에 있다. 특히 페루는 아마존지역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 로열티를 감소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후 탐사와 개발 붐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붐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만 현재 48개의 블록이 다국적 기업과 계약 하에 있다. 이들 중 2004~2007년 4년 동안에만 자그마치 40개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0년 5월에 정부 산하 석유 및 가스 광구 분양 기관인 Perupetro는 25개의 탐사 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들 73개의 블록은 페루 아마존 지역의 75%를 차지한다(Hance, 2010).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석유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에 의해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그 외 국

립공원 혹은 역사적 성역 등으로 특별히 보호되는 일부 구역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역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고립된 원주민의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페루는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넓은 열대밀림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 다음으로 넓은 아마존 지역이다. 그리고 페루의 아마존 지역에는 약 60개의 원주민 종족이 거주한다. 이들 중 14~15개 종족은 자발적 고립 상태에 있다(Defensoría del Pueblo 2006, 108). 페루는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자발적 고립 상태에 있는 원주민 종족 그룹의 수가 많은 나라이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도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 내 아마존 지역의 65%인 52,300km²를 석유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구역들은 10개 원주민 거주지역과 중복된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 석유개발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석유개발이 주로 에콰도르 아마존의 북부지역이었다면 지금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남쪽 지역의 중심에 야수니(Yasuni) 국립공원이 있다. 야수니 국립공원은 에콰도르에서 가장 중요한 대규모 아마존 국립공원이다. 그러나 그 지하에 에콰도르의 개발되지 않은 석유의 4분의 1이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 논리는 이제 야수니 국립공원마저 점차 위협하고 있다.

페루와 달리 에콰도르는 국립공원에서 석유와 가스의 채굴을 허용했다. 그러나 다양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에콰도르 정부는 2007년 1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야수니 국립공원 7,580km² 지역을 석유, 가스, 벌목을 금지하는 '손댈 수 없는 지역'(Zona Intangible)으로 선포했다. 그로 인해 이 지역에서 자발적 고립 상태로 살아가는 잘 알려진 두 원주민 그룹, 타가에리(Tagaeri)와 타로메나네(Taromenane)의 거주지가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야수니 남서쪽의 이미 임대된 두 구역의 개발도 이미 수년간 중단된 상태에 있다. 개발에

대한 원주민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환경보호와 원주민들의 삶 보호를 위해 에콰도르 제헌의회는 2008년 국가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청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구역에서 개발을 금지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최근 코레아 대통령은 야수니 국립공원 북동쪽에 매장이 확인된 8억 배럴 이상(현재가치로 약 180억불)의 석유를 개발하지 않는 대가로 국제사회에 36억불의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에콰도르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를 개발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소위 ITT(Ishpingo-Tambococha-Tiputini)로 알려진 이 구역은 수많은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립된 소규모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지역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탄화수소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은 주로 수질오염과 아마존의 삼림파괴이다. 아마존워치(Amazon Watch)에 의해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서 대표적 오염 사례 혹은 관찰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는 에콰도르 북동부 아마존 라고 아그리오(Lago Agrio)지역의 석유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아마존 지역에서 생산된 중질유를 태평양 연안까지 나르는 북부 지역의 중질유 송유관(OCP: Oleoducto de Crudos Pesados)프로젝트, 남동부 아마존 지역의 코노필립스 석유개발 프로젝트(ConocoPhillips Oil Projects)가 있고, 페루에서는 남동부 아마존 지역의 카미세아 가스전과 생산된 가스를 태평양 연안으로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의 카미세아 천연가스 프로젝트(Camisea Natural Gas Project), 그리고 페루 북부 아마존 지역의 석유생산과 파이프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 사례가 있다.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접근도로, 시추 플랫폼,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삼림을 파괴하고, 탐사와 생산 그리고 운송 중에 발생하는 석유 및



카미세아 가스전 건설현장 (이미지 출처: <http://redamazon.wordpress.com/>)

폐수의 유출은 수질을 오염시킨다. 뿐만 아니라 석유 개발로 인한 간접적 영향도 적지 않다. 석유생산을 위한 접근도로와 송유관의 건설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원시림 지역에서 벌목이나 사냥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새로운 이주자들의 정착지 건설과 농·목축업의 발전으로 삼림이 파괴된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아마존 북부와 중부의 광범위한 삼림파괴는 주로 석유 생산지 접근로를 따라 들어온 새로운 이주민의 정착지 개발로 인해 발생했다.

석유개발이 삼림파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아마존의 삼림파괴는 석유개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농·목축업의 개발로 인한 것이다. 아마존 석유개발로 인한 최대의 환경문제는 결국 수질오염 때문이다. 에콰도르에서 셰브론 텍사코(Chevron-Texaco)의 수질오염과 그에 따른 소송은 아마존 서부 지역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에콰도르 라고 아그리오 지역에서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이미지 출처: <http://www.topsecretwriters.com/>)

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텍사코는 1965년에서 1993년까지 에콰도르 북동부 아마존 지역의 라고 아그리오(Lago Agrio: 현재 지명은 Nueva Loja)에서 석유를 개발했다. 그런데 석유생산 중에 지표면으로 방출되는 생산수(produced water)를¹⁾ 당시 전통적 방식에 따라 자연증발을 위해 웅덩이 등에 방치했다. 아마존 원주민과 원고 측 법률인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시기에 생산수로 인해 방출된 오일의 양이 1989년 알래스카에서 엑손발데스 호 기름 유출사고 때 방출된 양의 거의 2배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강한 독성 물질의 방출은 지역의 수자원을 오염시킴으로써 암 발생, 장애아 출생, 피부나 호흡기 질병, 소아 백혈병 등의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했다(Denvir and Riofrancos, 2008).

이렇게 석유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은 원주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에콰

1) 1배럴 오일 생산에 7~10배럴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 물에는 오일, 유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도르 남동쪽 아마존의 블록 23과 24에 거주하는 슈아르, 아츠히아르, 키츠와족의 암과 그 외 질병 발생률이 최근 높아진 것은 이 지역의 석유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신들의 생활 터전인 밀림의 오염된 강에서 목욕하고, 그 물을 마시고,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에게 수질 오염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Amazon Watch).

그밖에도 석유개발과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원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가파른 언덕 지역에 건설된 페루 카미세아 가스관은 토양의 침식과 산사태 등을 일으킴으로써 그 지역의 강과 호수에서 물고기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을 차단시킴으로써 특히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을 야기했다(WWF-Peru).

환경문제와 원주민 갈등

에콰도르는 환경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었다. 석유 개발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함에 따라, 석유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이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통치성의 위기를 야기하기도 했다. 에콰도르의 풀뿌리 환경단체들은 아마존 밀림 보호에 뜻을 같이하는 미국의 국제환경단체들과 동맹하여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초기에 이들은 주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동식물 보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전 접근 방법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제한적 틀 밖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곧 캠페인의 방향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까지 포함하는 보다 큰 밀림 생태계 문제로 확대했다. 이러한 전략의 장점은 환경보전의 문제를 인권보호라는

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숲과 달리 아마존의 열대우림에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따라서 그의 파괴는 원숭이나 나무와 같은 동식물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를 끼친다. 원주민 공동체의 운명은 밀림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밀림의 파괴는 오랜 세월 그곳에 거주한 원주민 공동체 삶의 파괴를 의미한다. 아마존에서 밀림을 파괴하는 것은 따라서 원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아마존 밀림에서 환경문제와 원주민 인권의 문제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Southgate 2009, 20-21).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원주민 민족성 동맹(Confederació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 de la Amazonia Ecuatoriana, 이하 CONFENIAE)과 같은 원주민 단체들은 밀림 보전보다는 오히려 개발을 통해 그 이익을 원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엄격한 환경보전주의자와 원주민 권리옹호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들은 아마존 밀림에서의 모든 개발에 반대하는 그룹과 야수니 국립공원과 우아오라니(Huaorani) 보호구역 밖의 지역에서는 개발에 찬성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초기에 에콰도르의 환경그룹은 원주민의 토지권이나 생존권보다 환경문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분열과정을 겪으면서 이들은 원주민의 권리를 삼림의 보호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기 시작했다(Hall 1993).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성격의 환경운동은 국제적 지원을 받아 환경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주류 환경운동과는 구별된다. 이것은 계급적 성격을 지닌 환경운동, 즉 민중생태주의(ecologismo popular)라고 부르는 새로운 환경운동의 탄생을 의미한다. 원주민운동이 환경운동과 연합하고 게다가 사회정의 문제까지 포함함에 따라 원주민 운동은 에콰도르 정치에서 통치성의 위기를 야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실제 2000년대에 있었던 쿠데타와 대통령 축출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 격변의 뒤에는

강력한 원주민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현 코레아 정부는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약간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8년 새로운 광산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코레아 정부는 사회환경운동 단체를 배제한 채 다국적 기업에 우호적 입장을 취했다. 코레아는 석유개발로 인한 이익이 사회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환경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 유아적 좌파, 낭만적 생태주의자”라고 날카롭게 비난했다(El Comercio, 2009). 게다가 때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반대하는 원주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야수니 국립공원 지역의 석유개발을 언급하기도 했다.

에콰도르의 환경운동가들과 원주민 운동은 코레아 정부가 석유산업에 있어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아마존 지역에서 서구 다국적 석유 기업들의 영향력을 많이 감소시켰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브라질과 중국 등의 국영기업에게 석유 개발권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에콰도르 최대 원주민 조직인 CONAIE가 최근 강경노선으로 선회함으로써 소강상태였던 에콰도르의 환경원주민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페루에서 석유개발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에콰도르보다는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 강도는 결코 작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페루에서 사회갈등의 역사는 매우 뿌리가 깊다. 그러나 사회갈등이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원주민 문제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2004년 카미세아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페루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였다.

국민보호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사회환경 갈등(socio-environmental conflicts)은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전 사회환경 관련 갈등은 월 50건 이하였던 것이 2009년에는 거의 두 배가 넘어 월 1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2008년 8월 기준 161건의 사회갈등 중 49%가 사회환경적(socioambiental) 성격을 띠고 있



플러스페트롤사와 파스타사 강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의 협상 모습
(이미지 출처: <http://observatoriopetrolero.org/>)

다(Defensoría del Pueblo 2005-2009). 따라서 사회환경 갈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페루 사회갈등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에 대해 전임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확실히 개발논리에 치중했다. 아마존지역 개발과 관련된 그의 입장은 원주민 소유 토지의 상당부분이 쓸모없이 버려지고 단지 소규모의 토지만이 농업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아마존지역을 자원개발이나 조림 숲, 농업에너지(agrofuel) 생산을 위한 보다 생산성 높은 지역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개발 전략에 반대하는 원주민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 우말라(Ollanta Humala) 정부는 지난 3월 25일 마침내 페루 북동부 아마존 정글 지역에 환경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구역은 페루 아마존 유전 중 가장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서 현재 아르헨티나 석유기업 플러스페트롤(Pluspetrol)이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지역에서 석유생산은 이곳의 중심을 흐르는 파스타사(Pastaza) 강을 오염시킴으로써 여기서 고립된 채

수렵생활을 하는 키추아(Quichua)와 아수아르(Ashuar) 원주민의 생활 기반이 붕괴되었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그동안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정부는 최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플러스페트롤에 90일간의 기간을 주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별도로 1,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페루에서 처음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최대 허용치를 제시하는 환경평가기준도 공포했다. 그리고 기존에 광업부와 에너지부 소관이었던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과정을 2008년에 설립된 환경부로 넘겼다. 현 환경부 장관인 풀가르 비달(Pulgar-Vidal)은 이 기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업들이 규정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PRI's The World, 2013).

이는 2011년 대통령에 당선된 우말라가 환경보호 관련해서 취한 가장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말라 정부는 지금까지 개발을 위해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극적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말라 정부가 개발보다는 환경과 원주민공동체를 우선한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던지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페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되는 아마존 자원 개발에는 약간의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영불 석유회사 파렌코(Parenco)와 베트남 국영석유회사(PetroVietnam)이 합작해서 개발한 페루 북동부 아마존의 유전²⁾ 지난 7월 첫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말로 미루어졌다. 어쨌든 페루에서 아마존의 석유와 가스개발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개발의 주체는 환경과 원주민 문제에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카미세아 가스전 발견 이후 최대의 에너지 발견이라고 알려진 이 석유를 두고 알란 가르시아 전 대통령은 페루를 석유수출국가로 만들어 줄 ‘기적’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 Amazon Watch, "Mega Projects in the Amazon",
<http://www.amazonwatch.org>
- Defensoría del Pueblo. 2005-2009. *Reporte de Conflictos Sociales. Adjuntía para la Prevención de Conflictos Sociales y la Gobernabilidad*. Lima: Defensoría del Pueblo.
- _____. 2006. *Informe Defensoría No. 101: Pueblos indígenas en situación de aislamiento y contacto inicial*. Lima: Defensoría del Pueblo.
- Denvir, Daniel and Thea Riofrancos. 2008. "How green is the Latin American left? A Look at Ecuador, Venezuela and Bolivia".
<http://upsidedownworld.org/main/index2>
- El Comercio. 2009. "Correa pone de ejemplo a Canadá para defender beneficios de minería", *El Comercio*(Quito), 21 de febrero.
- Hall, Susan E. A. 1993. *Block 16: Conoco's 'Green' Oil Strategy*. Cambridge: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N9-394-001.
- Hance, Jeremy. 2010. "More of the Amazon opened to oil development".
mongabay.com, May 24.
- PRI's The World. "Peru's president orders environmental clean-up in Amazon oil region".
www.pri.org/stories/2013_05_23/perus-president-orders-environmental-clean-a.
- Southgate, Douglas et al. 2009. "Oil Development, Deforestation, and Indigenous Populations in the Ecuadorian Amazon", Presented to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in Rio de Janeiro, Brazil, June 11-14, pp. 1-38.
- WWF-Peru. 2010. "Oil and gas extraction in the Amazon: Camisea".
wwf.panda.org.

김기현 -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